

대로

~대로, ~에 따라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본보기 삼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명사와 관형형에 모두 붙으며, 두 경우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모든 명사	붙여 씀	약속대로
완료된 행동	-(으)ㄴ 대로	말한 대로
진행·일반	-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세요
~하는 즉시	-는 대로 + 미래	도착하는 대로 연락할게요
ㄹ로 끝남	ㄹ 탈락	만들다 → 만드는 대로
띄어쓰기	명사는 붙여 쓰고 관형형 뒤는 띄어 씀	약속대로 / 말한 대로

■ 언제 쓰나요

명사에는 바로 붙여 씁니다: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관형형뒤에는 띄어 쓰며, 시제가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는 ‘말한 그대로’라는 뜻으로 말하는 행위가 이미 끝났습니다. 말하는 대로는 ‘말하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진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규칙을 나타냅니다.

-는 형태에는 시간적 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할 행동에 붙으면 ‘~하자마자 곧’이라는 뜻이 됩니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이 의미는 약속이나 일정 조율에서 쓰이며, 이런 상황에서 -자마자는 너무 급작스럽게 느껴집니다.

■ 예문

- 1 약속대로 여섯 시에 도착했어요.
- 2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 3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요.
- 4 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 5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 6 마음대로 하세요.

■ 비교

처럼

처럼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닮았다는 뜻이고, 대로는 그것을 지시나 본보기로 삼아 따른다는 뜻입니다. 모방이나 준수냐의 차이입니다.

가수처럼 노래해요. (가수 같이 노래한다) / 배운 대로 노래해요. (배운 그대로 노래한다)

-자마자

‘~하는 즉시’의 뜻일 때 -는 대로는 앞으로의 일을 가리키며 약속에 잘 어울립니다. -자마자는 과거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이고 즉각성을 강조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할게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겠다) / 도착하자마자 연락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락했다)

관형형의 시제

-(으)ㄴ 대로는 이미 말했거나 한 것을 나타내고, -는 대로는 진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잘못 고르면 누가 누구를 언제 따르는 지가 달라집니다.

말한 대로 (이미 말한 그대로) / 말하는 대로 (지금 말하는 그대로)

■ 주의

✗ 제가 말한대로 하세요.

○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관형형 뒤의 대로는 독립된 단어입니다. 명사 바로 뒤에서만 붙여 씁니다: 약속대로.

✗ 어제 제가 말하는 대로 했어요.

○ 어제 제가 말한 대로 했어요.

지시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관형형은 과거여야 합니다. -는 대로는 진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나타냅니다.

✗ 저녁을 만들는 대로 부를게요.

○ 저녁을 만드는 대로 부를게요.

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